

# 중동 상황 관련 원양업계 애로 청취를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 유가 불안정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양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3일(월) 14시 부산 동원산업빌딩에서 국내 주요 원양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 원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유에 대한 원양업계의 수급 불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원양산 비중이 절대적인 명태,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의 공급 차질은 물론 밥상 물가 불안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를 직접 만나 원양어선의 연료유 수급 현황과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업계의 자체 대책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양업체와 정부 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이로 인한 원양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51-773-5360)
	원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원 (051-773-5361)